

민은기의 클래식 비망록

동성애자 차이콥스키, 죽음 예감한 듯 '비창' 최후의 열정

〈비극적 교향곡 6번〉

민은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



음악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어깨가 들썩이거나 고개나 발이 박자를 따라 움직인다. 여의치 않을 땐 손가락만이라도 까닥 거리게 되는 걸 보면 음악과 춤은 본시 하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음악과 춤을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부르는 부족이 아직도 많다고 한다. 한 몸 같았던 둘의 처지는 그 후 크게 달라진다. 음악은 일찌감치 종교와 협업하며 숭고한 예술로 대접 받았으나 춤은 육체적이고 본능적 욕망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자주 금지되곤 했다. 그랬던 춤이 처음으로 극장 무대에 올려져 감상하는 예술이 된 것이 발레다.

발레의 전통은 루이 14세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발레가 예술로 거듭난 때는 현실을 초월한 마법 같은 세계와 이국적이고 초자연적인 신비를 동경했던 낭만주의 시대이다. 낭만 발레는 주로 사람이 아닌 요정의 이야기였다. 발레리나는 토슈즈를 신고 중력을 거슬러서 솜털 같은 스텝으로 하늘로 날아오르며 시적 환상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춤이 화려해지는 만큼 이를 반주하는 음악은 오히려 단순해졌다. 그저 춤을 추기 좋게 박자나 맞추고 분위기를 조성 해주면 그만이었으니까. 이런 구도를 역전시킨 작곡가가 바로 차이콥스키다.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은 동심 가득

시작은 '백조의 호수'였다. 당초 차이콥스키에게 요구된 것은 무용수들의 연기를 돋보이게 하는 단순한 반주 음악이었다. 차이콥스키는 그러나 춤에 가려져 한 번 쓰고 버려질 음악이 아니라, 교향곡이나 오페라와 같은 독자적인 작품을 만들기 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백조의 주제가 펼쳐지는 정경을 도입하는 등 음악이 줄거리 속에 녹아들어 음악과 극이 분리되지 않는 곡을 작곡한다. 이제는 발레 없이 '백조의 호수'를 연주하기는 해도, 음악이 없이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는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었으니 실로 대단한 성공이다.

춤에 대한 차이콥스키의 재능은 타고난 것으로 보인다. 작곡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던 그가 열네 살에 두 달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며 만든 왈츠곡은 아이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섬세하고 애절하다. 당시 가정교사였던 아나스타사 페트로바에게 헌정한 일명 '아나스타사 왈츠'이다. 차이콥스키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입학한 후 작곡한 민속 무용곡들인 '캐릭터 댄스'도 당시 왈츠의 왕이라 불렸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를 사로잡았다. 춤곡에 대한 자신감 때문일까, 차이콥스키는 순수 기악곡인 교향곡에도 왈츠를 포함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음악에 특출한 재능을 보인 차이콥스키지만 그가 처음부터 음악가의 길로 들어섰던 것은 아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에게 음악은 어디까지나 교양이나 취미의 영역이었으니까. 그는 러시아의 최고 명문 학교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법률학교를 나왔고 법무성 관료로 근무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갈수록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던 그는 러시아 최고의 피아니스트 안톤 루비시테인의 설득으로 막 설립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늦깎이 학생으로 입학한다. 남중지추라고 했던가. 비범한 능력은 감출 수가 없다. 차이콥스키는 음악원 졸업반 학생 신분으로 모스크바 음악원에 교수로 임용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성공이 소심한 차이콥스키에게 커다란 부담이었고 엄청난 압박감 속에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작곡에 매달린다. 한 번도 대곡을 써본 적 없는 그는 신경쇠약에 걸려 환각 증세가

불멸의 19세기 러시아 작곡가

타고난 재능, 열네 살에 왈츠곡 작곡 관료 근무하다 음악원 늦깎이 입학 성 정체성 감추다 도피성 결혼 파국 편지만 교환한 메크 부인 후원받아 '교향곡 5번' '스페이드 여왕' 등 고독 속 애절한 위안의 선율 남겨

1893년 차이콥스키 초상화.

사진 사회평론



지 겪은 끝에 결국 '교향곡 1번'을 완성한다.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으니 조금 편해져도 좋으려만 그의 귀에는 청천하는 열 마디 찬사보다 한 마디 혹평이 먼저 들렸고 별 것 아닌 것으로도 그는 늘 불행했다.

차이콥스키는 게다가 성 소수자이기도 했다.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는커녕 법적으로 강력하게 금지되었던 러시아에서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평생 동안 감추며 살아야 했다. 부족할 것

하야 없는 그가 서른일곱 살이 되도록 독신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구설수에 오르기 일쑤였고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웠다. 그래서일까. 차이콥스키는 아홉 살 연하의 밀류코바로부터 열렬한 팬레터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결혼을 한다.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도피성 결혼이 아니었을까.

결혼 생활은 예상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처참하게 끝나버렸다. 그는 결혼한 지 2주 만에 멀리 카멘

카에 있는 여동생 집으로 도망쳤고, 자살까지 시도했다. 아내에게 되돌아가 보려고 했으나 재회하자마자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고, 여러 번 신경 발작을 일으키며 2주간이나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다. 이때 받은 충격은 그에게 씻기지 않을 만큼 혹독한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했으며, 증상이 심해지면 이유 없이 강박과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그 후 차이콥스키는 다시는 여성을 만나지 않았다.



왼쪽부터 차이콥스키와 아내 밀류코바. 교향곡 6번(비창) 초안 악보. 후원자 나데즈다 폰 메크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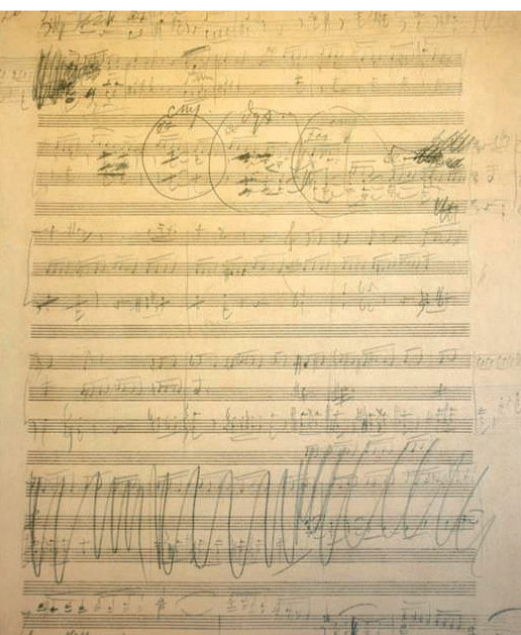


사진 사회평론

하지만 어떤 일이나 예외는 있는 법. 바로 차이콥스키와 러시아 대부호인 나데즈다 폰 메크 부인과의 교류였다. 그녀는 철도사업을 하던 남편의 사망으로 엄청난 재산과 사업을 물려받았고 드넓은 저택에서 은둔하며 극소수의 친한 사람들과만 만났으며 차이콥스키에게 몇 차례 작품을 의뢰한 인연으로 그의 후원자가 되었다. 메크는 그에게 매년 거액의 연금을 줌으로써 결혼 후유증으로 대인기피증까지 겪던 차이콥스키가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서로 절대로 만나지 않고 편지만 교환한다는 것이 교제의 조건이었다는 것. 두 사람은 14년간 1000통이 넘는 편지를 교환하며 미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묘한 관계를 이어갔다.

메크 부인의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 덕분에 점차 슬럼프에서 벗어난 차이콥스키는 '만프레드', 환상 서곡 '헨릿'에 이어 그의 대표적인 걸작 '교향곡 5번'을 내놓는다. 이 위대한 교향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에 빗대어 '차이콥스키의 운명 교향곡'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두 곡이 운명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판판이다. 차이콥스키의 인생관이 그려져서일까. 베토벤의 곡이 전사처럼 엄청난 결기를 보이며 운명에 맞서 싸우는 반면 차이콥스키의 곡은 심지어 그럴 의도조차 비치지 않는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자필악보에는 "운명에 대한 완전한 굴복"이라는 메모가 적혀있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긴박한 드라마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향곡이면서도 웅만한 극음악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 곡은 극적인 템포 변화와 거듭되는 반전으로 역동적인 결말을 맞는다.

오케스트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으나 그의 극적 재능은 본격적인 극음악에서 더욱 그 빛을 발했다. 특히 차이콥스키의 최대 역작이자 러시아 최고의 오페라로 꼽히는 '스페이드 여왕'에서 그가 비극을 다루는 솜씨는 그야말로 압권이다. 누구보다 예민했던 그는 음울하면서도 기괴한 화성과 밝고 우아한 선율을 끊임없이 교차시키며 인간 내면의 복잡한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그렇다고 차이콥스키가 항상 암울한 곡만 썼던 것은 아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전 세계의 극장에서 공연되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보다 아름다운 환상이 또 있을까. 이 곡은 청명한 헬레스타 선율처럼 반짝이는 동심으로 가득하다.

'비창' 초연 마치고 며칠 뒤 숨져

하지만 차이콥스키에게는 역시 비극이 잘 어울렸다. 그는 최후의 열정을 쏟아 세상에 가장 비극적인 교향곡 '비창'을 작곡한다. 너무나 침울하고 어두워서 '탄식의 베이스'라고 불리는 바순 솔로로 시작하는 이 곡은 울다 지쳐 쓰러지듯 사라지는 죽음으로 끝난다. 미리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듯 초연을 마친 며칠 뒤 차이콥스키는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콜레라지만 당시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극도로 조심스러웠던 차이콥스키가 식당에서 끓이지 않은 물을 마셨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었고 무엇보다 당국이 콜레라로 사망한 시신을 격리시키지 않은 채 조문객들이 그의 이마와 손에 입을 맞추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자살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평생을 존재론적인 불안과 고독을 안고 비극 속에 살았던 차이콥스키다운 종말이다. 차이콥스키 개인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토록 예민하고 섬세한 차이콥스키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기도 하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커다란 위로를 얻는 법이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애절한 선율은 덤으로 받게 되는 고마운 선물이다.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세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